

○GCPF해체와 CropLife International 설립 의미

‘소비자·사회적 변화’ 저절 대응 ‘인류 건강·환경’ 안전대책 실행

GEFAP부터 GCPF까지의 생 마감, 각국 농약협회 가족
소비자 불안에 대응·비즈니스 투명성 제고위해 노력할 것

홍보부

CropLife International은 2001년 6월 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GCPF(세계작물보호연맹)를 발전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농약공업의 국제단체로서의 역사를 간단히 돌이켜 본다.

국제단체가 처음 창설된 것은 유럽 농약단체가 분석법, 독성, 각국간 수송 등 공통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으로서 GEFAP(유럽농약공업연맹)을 설립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EFAP의 활동은 당초에는 유럽지역내에 국한되었지만 그후 세계각국의 등록제도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활동범위가 넓혀지게 되었다.

1966년 미국의 참여를 계기로 GIFAP(세계농약공업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는 벨기에에 두었다. 1991년에는 GIFAP 총회가

일본의 교토시에서 개최됨과 동시에 자문기관으로서 PAG(당시 다른나라 국제기업 13개사, 현재 9개사)가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세계 농약업계의 정책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EC농약관련 지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되고부터 유럽각국의 농약공업협회가 GIFAP과는 별도로 ECPA(Europe Crop Protection Association)을 설립하였고 각국 공업회를 대표로 하여 그룹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GIFAP은 농약을 대체하여 작물보호(Crop Protection)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GCPF(Global Crop Protection Federation : 세계작물보호연맹)로 개칭함과 동시에 ECPA와 성격을 동일시하는 APCPA(아·태작물보호협회)와 LACPA(라틴아메리카작물보호협회)를 탄생시켰다. 또 일본과 미국공업협회는 각각



JCPA와 ACP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본농약공업회는 1969년에 가입하였고 1995년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CropLife International 설립배경

농업과 식료품 생산 및 소비자 동향의 변천이 매우 복잡해져 있는 데다 상호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세계인구의 과반수가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식량 및 섬유용식물의 생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소비자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먹거리의 생산자, 대형판매점, 농가 등은 소비자의 필수품이었던 식량의 공급이 선택적 수요로 되었다. WTO의 시애틀 회의 이후 일반대중과 NGOs의 목소리가 다방면으로 커져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 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전달과 관련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는 식료품의 안정공급에 관한 사회적 역할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가와 소비자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작물보호산업의 국제적 대변자로서 이 같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농약기업이 맡은 역할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덧붙여서 우리업계의 과학적 기술 혁신으로 세계에 도움을 주도록 한층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더 한층 대화하는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여러문제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과 조직의 활동을 정보전달 체계에 맞추어 변경함과 동시에 GCPF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CropLife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다. Crop Life International은 이 중요한 변화를 반영시킨 명칭으로서 선택되었다.

CropLife International이란?

세계의 식료품, 사료, 섬유 등의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고 생물학, 화학, 생명공학기술, 식물육종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최고수준의 윤리와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을 실행함은 물론 소비자와 규제당국과 NGOs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불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즈니스에 관한 투명성 추구에 노력하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자유시장개방 원칙을 추구하는 국제조직이다.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

주요 가맹단체를 보면 ACPA(Americ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AMEWG (Africa-Middle East Working Group), APCPA (Asia-Pacific Crop Protection Association), ECPA(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JCPA(Jap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LACPA (Latin Americ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등이 있다. **농약정보**